

# 손흥민 개인 최다 공격포인트 타이

## 브라이턴 호브 엘비언전 선제골 어시스트 28번째 공격포인트 기록 지난 시즌과 동률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의 손흥민이 무서운 집중력으로 어시스트를 생산하며 한 시즌 개인 최다 공격 포인트 타이 기록을 세웠다.

손흥민은 18일(한국시간) 영국 브라이턴 팜 스타디움에서 열린 브라이턴 호브 엘비언과 원정경기 후반 3분 해리 케인의 선제골을 어시스트했다.

시즌 10호 어시스트이자 시즌 28번째 공격 포인트다.

손흥민은 지난 시즌 21골 7어시스트를 기록하며 공격 포인트 28개를 올렸는데, 올 시즌엔 리그를 약한 달 남겨둔 시점에서 18골 10어시스트를 생산해 지난 시즌 기록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지난 12일 본머스전에서 골을 넣은 뒤 5경기 만에 공격 포인트를 추가했

고, 3월 1일 잉글랜드 축구협회(FA) 컵 로치데일 전 이후 8경기 만에 어시스트를 기록했다.

손흥민의 어시스트는 환상적이었다.

그는 0-0으로 맞선 후반 3분 페널티 지역 오른쪽 측면에서 흘러나온 공을 살려냈다.

상대 수비수와 몸싸움을 이겨내며 골라인을 타고 드리블한 뒤 페널티 지역 중앙에 있던 케인에게 공을 넘겼다.

케인은 노마크 기회에서 손쉽게 골을 넣었다. 사실상 손흥민이 만들어낸 골이었다.

손흥민은 이날 경기에서 골만 넣지 못했을 뿐, 눈부신 활약을 펼쳤다.

크리스티안 에릭센, 루카스 모라와

함께 2선 왼쪽 측면 공격수로 선발 출전한 손흥민은 전반전에서 날카로운 슈팅을 여러 차례 시도하며 공격을 이끌었다.

전반 22분 왼쪽 측면을 돌파해 슈팅을 때렸고, 전반 추가시간엔 페널티 지역 중앙에서 상대 수비수의 거친 압박을 이겨낸 뒤 오른발로 슈팅했다.

이번이 상대 골키퍼의 선방에 막히게 아쉬웠다.

후반전엔 케인과 투톱으로 자리를 옮겨 공격을 퍼부었다. 전방에서 부지런히 뛰어다니며 압박했고, 후반 3분 케인과 골을 합작했다.

다만 토트넘은 케인의 골이 나온 뒤 불과 2분 만에 상대 팀 파스칼 고르스에게 페널티킥 득점을 내줬다.

손흥민은 남은 시간 동안 끈질기게 득점을 노렸지만, 골문은 열리지 않았다. 토트넘은 브라이턴과 1-1 무승부를 기록했다.

한편, 아르헨티나의 '간판스타' 리오넬 메시(바르셀로나)와 한국 축구의

'간판스타' 손흥민이 미국에서 맞대결을 펼친다. 무대는 2018 인터내셔널 챔피언스컵(ICC)다.

ICC는 18일 홈페이지를 통해 올해 대회에 나갈 18개 클럽과 대진표를 발표했다.

올해 ICC에는 아스널, 첼시, 리버풀, 맨체스터 시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토트넘(이상 잉글랜드 6개팀), 파리 생제르맹(프랑스 1개팀), 바이에른 뮌헨, 보루시아 도르트문트(이상 독일 2개팀), 인터 밀란, 유벤투스, AC 밀란, AS로마(이상 이탈리아 4개팀), 벤피카(포르투갈 1개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레알 마드리드, 세비야(이상 스페인 4개팀) 등 유럽의 강호로 손꼽히는 18개 클럽이 대거 참석한다.

이번 대회는 7월 20일 시작해 8월 12일까지 미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폴란드, 싱가포르,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등 8개국 22개 도시에서 펼쳐진다.

/연합뉴스



태권도 리더스클럽 소속 초등학생들이 제18회 5·18마라톤대회 5.18km에 참가, 완주를 통해 광주정신을 새길 예정이다.

## “마라톤완주로 광주정신 새기고 파”

### 문산태권도 등 TLC 초등학생 200명 참가 올해 3번째 대회 참가 “완주 후 보람 커”



“어린 학생들에게 마라톤은 다 소힘든 운동이지만 완주한 후에 뿌듯함을 느끼는 것 같아 올해도 참가하게 됐습니다.”

내달 12일에 치러지는 제18회 5·18마라톤대회에 어린 태권도 학생들이 출사표를 던졌다.

그 주인공은 TLC(태권도 리더스클럽) 초등학생 200여명이다.

TLC는 지난 2016년부터 3년째 5·18마라톤대회에 참가하고 있다. 선호하는 코스는 학생들이 뛰기에 큰 부담이 없는 5.18km이다.

그리 길지 않은 코스이지만 완주 후에는 다른 코스 못지 않게 큰 성취감을 느낄 수 있다.

TLC 학생들은 이번 마라톤 참가를 위해 태권도 훈련이 끝나고 400m 트랙을 꾸준히 돌며 기초체력을 키우고 있다.

올해 행사에서는 TLC 중문산태

권도장의 학생들이 대회 전 태권도 시범단 공연을 펼칠 예정이다.

문산 태권도 관계자는 “지난 2년간 마라톤 대회에 참가한 학생들의 호응도가 높고, 완주했다는 기쁨을 다시 만끽하고 싶어해 올해도 참가키로 했다”며 “올해는 TLC 중문산태권도장의 태권도 시범단이 대회에 앞서 공연을 펼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에는 TLC 소속 태권도장의 학생들이 모두 참여해 우리나라 고유 무술인 태권도를 널리 알리는 데 일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TLC는 문산태권도, 문흥중앙태권도, 꿈꾸는척사태권도, 번개태권도, 초이태권도, 상무태권도, 이태훈태권도 등 7개 태권도장 모여 올해로 7년째 지역 태권도 프로그램을 개발, 기획하고 각 태권도장을 다니는 학생들간 교류를 통해 태권도를 지역민들에게 알리는 모임이다.

/김종찬 기자



강력한 슈팅 토트넘 홋스퍼의 손흥민(왼쪽)이 18일 오전(한국시간) 영국 브라이턴 호브의 아멕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브라이턴 호브 엘비언과의 원정경기에서 오른발 슈팅을 시도하고 있다. /AP·연합뉴스

## 박지수 WNBA 진출 결심 내주 초 출국

### 소속팀 국민은행도 미국행 도전 힘 실어줘

광주 윤평국 '베스트11'  
K리그2 2018 7라운드



윤평국

광주FC 골키퍼 윤평국이 KEB하나은행 K리그2 2018 7R 베스트11에 선정됐다.

윤평국은 지난 14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안산 그리너스와의 경기에서 선발 출장했다. 윤평국은 종료 6분전인 후반 39분, 페널티 에어리어 안에서 양 팀 선수가 충돌하면서 안산에 주어진 페널티킥을 막아내며 광주를 패전의 위기에서 구해냈다. 이날 광주는 0-0 무승부를 기록했다.

베스트11에는 공격수 서보민(성남), 김민균(아산), 미드필더 최오백(서울E), 허범산(아산), 날손주니어(부천), 황인범(아산), 수비수 박세진(수원F), 김동철(아산), 오르솔리치(성남), 윤영선(성남)이 선정됐다. /최진화 기자

미국여자프로농구(WNBA) 신인 드래프트에서 지명된 박지수(20·193cm)가 미국 프로 무대 도전을 선언했다.

박지수의 소속팀 청주 국민은행은 18일 “박지수가 WNBA 라스베이거스 에이시스 트레이닝 캠프 참가를 위해 다음 주 초에 미국으로 떠난다”고 발표했다.

박지수는 13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2018시즌 WNBA 신인 드래프트에서 전체 17순위로 미네소타 링스에 지명됐다.

드래프트가 끝난 뒤 곧바로 라스베이거스 에이시스로 트레이드된 박지수는 국내 소속팀인 국민은행과 계약 기간이 남은 데다 올해 8월 아시안게임과 9월 세계선수권 등 국가대표 일정도 있어 미국 진출 여부에 대해 확답하지 못했다.

그러나 국민은행과 상의 끝에 올해엔 WNBA 진출의 기회에 도전하기로 했다.

국민은행은 “WNBA 규정과 WNBA와 선수협회 간 협약서 및 현지 구단 지원 사항 등의 조건을 다각도로 검토한 결과 한국 여자농구 위상 강화



와 선수 개인의 발전을 위해 긍정적이라는 판단을 내렸다”고 박지수의 미국행 도전에 힘을 실어주기로 한 배경을 설명했다.

라스베이거스에는 2002년 국민은행 소속으로 뛰었던 WNBA 센터 출신 켈리 슈마허가 코치로 있는 점도 박지수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

2016년 한국여자프로농구(WKBL) 신인 드래프트 전체 1순위로 국민은행에 지명된 박지수는 데뷔 시즌에 신인상을 받았고, 2017-2018시즌에는

정규리그에서 평균 14.2점에 12.9리바운드, 2.5블록슛의 성적을 냈다.

한국 선수로는 2003년 정선민(44) 신한은행 코치 이후 15년 만에 WNBA 신인 드래프트에서 이름이 불린 박지수는 라스베이거스의 트레이닝 캠프를 통해 5월 19일(한국시간) 개막하는 정규리그 로스터 진입에 도전한다.

WNBA 2018시즌 시범 경기는 5월 7일에 개막하며 라스베이거스의 첫 경기는 5월 7일 중국 대표팀과 경기다.

트레이닝 캠프는 한국시간으로 30일에 시작되고 정규리그 개막 전날인 5월 18일까지 팀당 12명의 개막 엔트리가 정해진다.

12명 엔트리에 들게 되면 박지수는 8월 19일까지 진행되는 정규리그에 뛰게 되고, 팀 성적에 따라 8월 21일에 시작하는 플레이오프까지 출전할 가능성이 있다.

박지수는 농구 국가대표 센터 출신 박상관 전 명지대 감독과 배우 청소년 대표 출신 이수경 씨의 1남 1녀 중 둘째다. 오빠 박준혁은 농구 선수에서 배우로 전향, 현재 현대캐피탈에서 뛰고 있다. /연합뉴스

## 대통령기 전국사이클 대회 나주시 개막 22일부터 6일간 벨로드롬사이클경기장

제35회 대통령기 전국 사이클 대회가 오는 22일부터 27일까지 6일간 나주시 벨로드롬사이클 경기장에서 열린다.

대한자전거연맹이 주최하고 전남도 자전거연맹이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86개 팀 총 420여명의 선수가 참가한다.

세부종목으로는 스프린트(개인, 단체), 1~4km 개인(단체)추발, 스크래치, 템포 레이스 등 남·여 일반부, 고등부, 중등부부 나뉘어 19개 종목에서 우열을 가린다.

특히 현 국가대표선수 22명이 참가할 예정인 이번 대회는 우수한 성적을

거두면 오는 6월 개최될 아시안 게임에 나갈 국가대표 선발전에 가산점이 부여된다.

사이클 증가로서 지난 2000년부터 매해 이 대회를 개최해온 나주시는 우수한 스포츠 시설 인프라 구축을 통해 국내 사이클 경기력 향상은 물론, 아시아와 세계 대회 출전 선수들의 우수선수 발굴 및 육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나주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스포츠 대회 유지를 통해 전라도 정명 천년의 중심이자, 스포츠 메카도시 나주를 전국에 알리고, 시민 건강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나주=신종희 기자

## 김시우, 가르시아와 동반 플레이

### 내일 새벽 발레로 텍사스오픈 티오프

김시우(23)가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발레로 텍사스 오픈에서 지난해 마스터스 챔피언 세르히오 가르시아(스페인)와 동반 플레이를 벌인다.

발레로 텍사스 오픈 대회 조직위원회가 18일(한국시간) 발표한 대회 1, 2라운드 대회 조 편성표를 보면 김시우는 가르시아, 빌리 호셀(미국)과 함께 같은 조에서 경기를 하게 됐다.

이 대회는 19일부터 나흘간 미국 텍사스주 샌안토니오의 TPC 샌안토니오에서 열린다.

김시우는 16일 끝난 PGA 투어 RBC 헤리티지에서 연장전 끝에 고다이라 사토시(일본)에게 져 준우승했다. 투어 3승째 달성은 실패했지만 최근

3개 대회에서 월드골프챔피언십(WGC) 델 테크놀러지스 매치플레이 16강, 마스터스 공동 24위, RBC 헤리티지 준우승 등 상승세를 타고 있다.

지난해 마스터스에서 우승한 가르시아는 올해 대회에서는 컷 통과에 실패했다. 마스터스 이후 대회 출전은 발레로 텍사스 오픈이 처음이다.

호셀은 PGA 투어에서 통산 4승을 거둔 선수다.

PGA 투어 인터네셔널 챔피언십 발레로 텍사스 오픈을 앞둔 대회 전망을 통해 김시우는 ‘파워 랭킹’ 12위에 올랐다.

김시우는 한국 시간으로 20일 오전 2시 50분에 1번 홀에서 경기를 시작한다. /연합뉴스